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38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2200-500 www.kwangju.co.kr 2009년 6월 9일 (음력 5월 17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2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4대강 가운데 영산강 함평천 사업전(왼쪽)과 사업 후 모습. /연합뉴스

영산강 살리기 총 2조6천억 투입

1조900억 증액…섬진강도 4대강 마스터플랜 포함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2조6천461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 영산강과 연결된 섬진강 정비사업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종합계획)에 포함됐다. 〈관련기사 3·9·12면〉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2조6천46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에서 확정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비는 지난해 12월 최초 사업계획 발표 당시에 비해 1조9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유역면적당(㎢) 사업비는 7억6천300만원으로 전국 4대강 가운데 가장 많았으며, 하천연장당(㎞)당 사업비도 191억7천만원으로 낙동강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영산강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총 사업비 1조3천583억 원을 들여 3천만㎥의 퇴적토를 준설하기로 했으며, 1천835억 원을 투입해 3천만㎥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2개의 보(죽산보·승촌보)를 신설키로 했다.

또 10개소 73㎞에 이르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4개소 17㎞의 제방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담양과 화순에 2개의 홍수조절지를 조성하고, 나주에도 강변저류지 1곳을 만들기로 했다. 220㎞에 이르는 자전거도로 조성계획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홍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6천18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을 확장(240m→480m)하고, 14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제방을 높여 물 저장용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483억 원을 들여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섬진강과 황룡강, 함평천을 비롯한 주요 지류 국가하천의 경우 '직접연계사업'으로 분류, 수질개선비용 3조4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5조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섬진강의 경우 생태하천 57㎞, 제방보강 20㎞, 자전거도로 212㎞가 조성되며 농업용저수지 9곳의 제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의 연계사업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총 22조 2천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 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 공구, 일반 68개 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는 이달 안에 이뤄지며,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새로 발주하는 사업들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발주하게 되며 보 설치 등 중요사업은 국토부 가, 그리고 지류하천 정비 등 단순사업은 지자체가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北, 美 여기자 2명 12년 중형

미국 "즉각 석방하라"

북한의 중앙재판소가 8일 미국 여기자 2명에게 각각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함으로써 이들 여기자 석방을 위한 북미간 교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6월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은 "여기자들의 석방을 위해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며 "두 미국인 기자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즉시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별관 합의안 나오면 추진단도 수용 해야"

5월단체, '10인 대책위'에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옛 도청 별관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5월 단체들은 "도청 별관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단일 합의안을 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10인 대책위원회'에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8일 옛 전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추진단은 문화전당 건립이 국책사업임을 내세워 별관 해법에 대한 지역 사회의 단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또다시 표류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어 "10인 대책위가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단은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5월 단체들이 향후 도출될 '10인 대책위'의 단일 합의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해석돼 추진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5월 단체들은 지난 6일 '10인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10인대책위의 단일안이 제시될 경우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을 대표들에게 이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5월 단체들은 시민여론 조사 방식을 통해 별관 문제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5월 단체들은 "10인 대책위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여론조사로 (별관문제를)결정하려는 의도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결과 자체가 예측 불가능한 여론조사에 대한 부담과 함께 설문 항목 등 조건에 따라 여론의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5월 단체들은 최근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10인 대책위와 ▲조정기간(7일~27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다 ▲조정기간에 단일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뜻을 묻기 위해 3차례 방송공개 토론회를 연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Package
부페장식 27,000원 부터
예약실 ☎228-4711~2
대표전화 ☎228-8000

알 림

제 16 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전국 시·도대표 20개팀 출전

6월 15일~22일까지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5일부터 22일까지 광주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립니다.

호남 유일의 전국고교야구대회인 무등기에는 지난해 우승팀인 성원고를 비롯 광주지역 2개팀, 서울 5개팀, 경기 및 부산 2개팀, 여타 시·도 각 1개팀이 출전해 고교야구 정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박진감 넘치는 고교야구의 진수를 보여 줄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 야구팬 여러분의 관심과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 주최 : 광주일보사 · 대한야구협회

● 주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